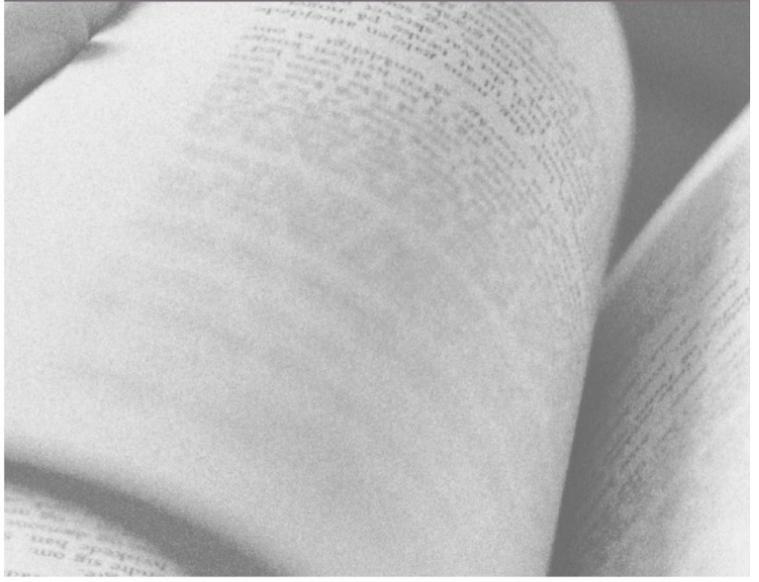


평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통일과정에서의 활용 방안

이 헌 근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평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통일과정에서의 활용 방안

이 현 근





평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통일과정에서의 활용 방안

인 쇄 2006년 12월 29일
발 행 2006년 12월 29일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기획조정실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887)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1 (팩시밀리) 901-2541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가 격 비매품

© 통일연구원, 2006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 매장: 734-6818 ·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평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통일과정에서의 활용 방안 / 이현근.
— 서울 : 통일연구원, 2006
p. ; cm. — (KINU 정책연구시리즈 ; 06-08)

참고문헌수록
ISBN 978-89-8479-390-3 93340 : 비매품

340.911-KDC4
320.9519-DDC21

CIP2006002936

평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통일과정에서의 활용 방안

이 헌 근

부경대학교 연구교수

목 차

I. 서론	1
II. 한국의 평화사상	5
III. 한반도 통일과 평화	15
IV. 평화의 국가 브랜드화 방안	23
V. 결론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정책 제언	33
참고문헌	43
참조자료	47

I 서론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다.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문제는 세계인들의 주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위기의 해결은 역설적으로 평화에 대한 강조로 가능하며, 따라서 지금은 우리 스스로 평화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한민족이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과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평화에의 강조가 최고의 전략이 될 수 있다. 평화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남북한은 물론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때 한민족은 비로소 통일의 소망을 이룰 수 있고, 나아가 자랑스러운 평화국가로 설 수 있다. 이처럼 평화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지나쳐도 국익에 손해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평화의 무기화, 평화의 전략화는 치밀한 정책수립과 지혜로운 정책집행에 의해 가능하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가 이미지는 무엇일까? 즉 세계의 많은 이들은 대한민국의 이미지로 무엇을 떠올릴까? 가장 최근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한국의 이미지 조사에서 ‘분단국가’(42%), ‘한

류’(24%), ‘IT·정보화’(22%) 순이라고 답했다.¹ 또 2004년에 조사된 세계 70개국 성인남녀들을 상대로 한 조사 자료에 의하면, 한국에 대한 이미지로 ‘남북분단’(28.7%), ‘고도경제성장’(24%), ‘2002월드컵’(21.2%), ‘IT산업’(10.5%), ‘88올림픽’(9.2%) 순으로 응답하였다.² 결국 분단상황이 우리의 국가 이미지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평화를 강조할 수 있는 정당화의 논리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평화의 가치를 한국을 상징하는 브랜드로 키우고 활용하여야 한다. 분단극복과 통일, 그리고 평화를 위해 한반도를 국익과 자국의 영향력 행사에 이용하려는 열강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완전한 전략은 힘들겠지만, 어느 한 나라도 거부할 수 없는 상황논리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는 분단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외교적 노력과 민간분야의 국제적 협력을 통해 가능하다. 점진적으로 그러나 구체적이고 지혜로운 그림을 그리기 위한 전략적 노력이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한민족 통일의 순간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며,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상황을 만들 수 있을 때 현실화된다. 평화는 이를 만들려는 노력, 즉 피스 메이킹 전략(peace making strategy)을 통해 쟁취되며, 또한 쟁취된 평화는 이를 슬기롭게 지키려는 노력, 즉 피스 키핑(peace keeping)에 의해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기본 시각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흥익인간 이화세계라는 건국 이념, 곧 한민족의 평화사상이 동북아는 물론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왜 한민족의 통일이 동북아를 넘어 세계 평화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특히 평

¹-『조선일보』, 2006년 8월 7일, 8면.

²-2004년 KOTRA 국가 이미지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http://blog.news.go.kr/ligang/v/40022172>> 참조.



화를 한민족 혹은 통일한국의 국가 이미지로 브랜드화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화 방안을 모색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그렇다면 왜 평화를 한국의 국가 이미지로 브랜드화 해야 하는가? 평화에 대한 국가 이미지 강화는 현재 당면한 한민족의 문제와 통일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평화를 통해 한국이 처한 현 상황을 넘어설 수 있다. 분단극복과 통일은 우리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의 정신을 통해 한민족 내부의 단합과 민족정체성 회복의 계기에서 시작될 수 있다.

둘째, 평화에 대한 강조를 통해 한민족의 분단현실과 평화의지를 세계에 여론화할 수 있다.

셋째, 평화를 통해 동북아 화해협력의 중요성과 한민족 통일의 밀접한 연계성을 정당화 할 수 있다. 즉 통일과정에서 동북아의 화해가 이루어질 것이며, 나아가 통일한국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지대(peace-zone), 평화공원(peace park)의 역할을 할 것이다.

넷째, 평화는 현재를 위한 안보전략이자 동시에 통일한국과 미래를 위한 최고의 투자전략이다. 평화의 국가 이미지를 선점하여 평화의 국제적 연대 노력의 중심에 한국이 서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화의 상징화, 이벤트화, 홍보화 등 끊임없는 투자와 지혜로운 전략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평화 이미지 강화는 영토분쟁, 역사분쟁 등에서 국제적 여론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결국 본 연구는 평화가 한민족의 분단 극복과정, 통일과정에서 최고의 정당성 논리로 작동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 시작된다. 즉 우리는 무엇으로 분단을 극복할 것인가, 분단의 장애물을 ‘평화’라는 브랜드 가치로,

통일한국의 평화가 동북아는 물론 세계평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현실화하는 방안이 곧 평화의 브랜드화 전략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이것은 한민족의 미래와 번영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며, 투자임을 제고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II 한국의 평화사상

이제 전 세계가 한국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지구상의 마지막 분단 국으로 남은 대한민국, 그 어느 나라보다도 평화가 절실한 곳이다. 우리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힘이 없었기에 결국 우리는 남북으로 갈라져야 했다. 무력통일을 하고자 한다면 철학은 필요없다. 그러나 정말로 평화 통일을 원한다면 남북이 서로 교류하고 함께 화합할 수 있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 민족의 통일을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우리에게 통일철학이 있는가? 그 통일철학을 불교에서 찾을 것인가, 유교에서 찾을 것인가, 아니면 기독교에서 찾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정신과 문화 속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 민족의 햇불이 될 정신은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정신이다. 그 빛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정신적 구심이다.³

인류는 기아, 전쟁, 테러, 종교와 이념의 대립, 양극화 등 참담한 미래

³-이승현, 『한국인에게 고함』 (서울: 한문화, 2006), p. 50.

가 예견되는 여러 가지 시한폭탄들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는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너와 나, 더 나아가 지구와 내가 하나이며 생명을 같이하는 운명 공동체임을 인식하는 인류 전체의 큰 의식 변화가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간 인류의 역사는 힘의 역사, 정복의 역사, 지배의 역사였다. 되풀이되는 이러한 역사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지구의 문제, 인류 평화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성공과 승리라는 가치보다 함께 성장하고 완성에 이르는 가치를 깨달을 때 인류는 운명공동체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이제 전 세계가 21세기의 새로운 가치, 평화를 위한 새로운 정신과 문화를 찾고 있다. 그렇다면 인류의 의식을 진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철학과 문화가 어디서 탄생할 것인가? 나는 그 답을 우리 민족 고유의 선도문화에서 보았다. 국가와 국가 간의 대립, 종교와 종교와의 대립, 그 참여한 대립을 넘어설 수 있는 철학이 우리가 지구에 뿌리를 둔 생명 공동체임을 인식하는 지구인 정신이며, 그것이 바로 홍익철학이요, 천지인 사상인 것이다.⁴

페이지 교수는 “비살생 한국: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제언”이라는 논문에서 한국의 문화와 경험과 현재의 창조적 잠재력에 뿌리를 가지며 비살생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들이 많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것들은 바로 21세기에 전 세계를 비폭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고, 비살생에 대한 독특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들인 것이다. 페이지 교수가 주목한 근거는 고대 한민족의 건국신화에 나타나는 홍익인간의 사상이며, 생명 존중의 사상이다. 이어 그는 한국의 전통에서 비폭력의 근원은 한민족의 단군 건국신화 속에 있음에 주목하였고, 또한 “한민

4-위의 책, p. 50.

족의 역사를 통틀어 근본적으로 평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이웃을 침략한 적이 없고 오히려 침략의 희생물이 되어 왔다는 것이 증명하고 있다”는 점을 인용하고 있다.⁵

이어 페이지 교수는 전 세계를 비살생 지도력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독특한 역할과 잠재력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나는 비교적 긴 문장들을 인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페이지 교수의 논리는 왜 우리가 평화를 강조하고, 한국의 평화가 세계의 평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나아가 동북아는 물론 보편적인 정당성의 논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류의 평화에 대한 열망이 자주 억압되어 왔다는 사실에 대한 최근 에 있었던 극적인 증거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발표한 공동선언으로, 이 선언이 표명한 인간적인 면에 대하여 세계가 인정하고 한국인들의 감정이 분출된 사실에서도 그 열망을 발견할 수 있다 … ‘냉전’이라고 잘못 이름 붙여진, 그러나 사실은 최초의 대규모 열전의 희생자였던 한국인들은 2000년을 이렇게 시작함으로써 독특한 비살생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21세기에 세계의 지도력이 비살생 지도력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한국인들은 이제 비살생 지도자가 됨으로써 심한 고통을 받는 분단 조국과 그들 자신을 역사적인 세계 폭력체제의 희생자의 위치에서 세계를 비폭력 세계로 전환시킬 수 있는 위치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인들은 그들의 통일과정에서 지방이나 지역 혹은 세계 차원에서 폭력을 확대

⁵-페이지 교수는 종교지도자 함석헌 옹과 평양의 저명한 사학자 박시형 교수의 가르침을 인용한 것이다. 그는 미래에 있을 비살생 한반도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건국신화의 통찰력은 엄청난 중요성을 갖는다는 점과 한인들이 일본 제국주의에 징집당하여 아시아를 정복하기 위한 살생에 참가한 것과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월남전에 참전하여 살생에 가담한 것은 예외적인 사건임을 지적한다. 안청시 편, 『비살생정치학과 지구 평화운동』 (서울: 집문당, 2004), pp. 219~220.

재생산해 온 역사적 체제로부터 창조적으로 결별해야 할 것이다. 냉전시대에 난폭하게 분단되었으나 재통일된 다른 두 나라들, 즉 베트남과 독일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베트남은 내전과 국제전에서 승리함으로써 하나의 재래식 폭력의 결과로 통일되었다. 독일은 폭력을 수용하는 국가로서 통일되었으며 다시 재무장하고 군사동맹체제에 흡수되고 말았다.

한국은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과 비교해서 한국은 비살생 민족 재통합의 과정으로 들어섬으로써 인류를 폭력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립화된 한국이라는 아이디어, 즉 전쟁을 영원히 하지 않고 세계와 그들의 이웃과 함께 상호이익이 되는 건설적이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한국이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다 … 한국이 세계적으로 비살생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저력은 역설적으로 지난 세기에 세계에서 가장 혁명적이고 폭력적으로 현대화한, 한국을 둘러싼 4강에 의해서 크게 충격을 받은 결과와 독특한 경험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민족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4강 모두로부터 그렇게 밀접한 영향을 받는 나라는 없다 …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강이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한국이 비살생 지도력을 숭선하여 발휘하는 것은 4강을 통하여 전 세계에 전파될 수 있을 것이다. 4강은 원한다면, 21세기에 인류생활과 한국인들의 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한국인들의 비살생적인 사회개혁을 더욱 확대시키고 세계적으로 전파할 수 있을 것이다.⁶

그렇다면 비살생 한국은 가능한가? 답은 ‘가능하다’이다. 뿐만 아니라 비살생은 미국에서도 가능하며 러시아에서도 가능하고 중국에서도 가능하며 일본에서도 가능하다. 그리고 모든 다른 인류사회에서도 비살생은 가능하다. 남북한에 있는 한국인들은 이제 세계의 모든 이들에게 길을 안내하기만 하면 될 것이다.⁷

⁶-위의 책, pp. 241~243.

⁷-위의 책, p. 244.

위에서 페이지 교수도 언급하였듯이, 다행히 우리는 고유한 평화철학과 사상을 통해 평화를 설득하고 전파할 수 있는 민족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연식은 ‘홍익인간’이라는 대동주의적이며, 보편적 복지주의적 정치사상으로 당시 고대 동북아를 동일문화권으로 통합시킬 수 있었음에 주목하고 있다. 즉 ‘홍익인간’ 사상이 인도주의적 정신, 대동주의 내지 보편주의적 사상, 덕치주의 사상, 상호존중 평등 및 평화의 원리, 철저한 현세주의와 윤리의식을 포괄하는 철학이었고, 따라서 당시 동북아는 평화로운 세상이었음을 밝히고 있다.⁸

한편 조선시대에 이르러 현실적으로 유학의 평화 관념은 오히려 ‘사대’와 ‘교린’이라는 관념을 통해서 찾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대동세계의 이상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유교문화권에서 사대와 교린은, 오랫동안 국가들 사이의 질서를 규율해온 정책이자 동시에 원리이기도 했다.⁹

한편 로버트 쿠퍼는 신뢰할 만하고 지속적인 평화체제란 정당성의 창출에 좌우되며, 평화가 오래 지속되려면 평화의 조건을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¹⁰ 그 조건을 한민족의 통일과정에서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준비를 우리 정부는 시도하여야 한다. 우리의 통일은 동북아, 아시아를 넘어 세계 평화를 위한 주춧돌이 될 수 있음을 외교정책과 국내의 다양한 수단을 통해 계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때, 분단의 극복과 통일, 나아가 한민족의 평화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

가장 바람직한 목표는 포스트모던 세계를 더욱 확대시켜 결국 국가

⁸-정연식, 『상고대조선의 정치이념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3), pp. 61~65.

⁹-하영선 편, 『21세기 평화학』 (서울: 풀빛, 2002), p. 81.

¹⁰-로버트 쿠퍼 저, 홍수원 역, 『평화의 조건』 (서울: 세종연구원, 2004), p. 222.

간 관계가 국제법과 협상에 의해 규율되는 모범을 만들어내고, 나아가 국내외 정책이 한 가닥으로 서로 짜이고, 또 개별 국가의 정체성이 한층 폭넓은 국제 공동체의식으로 융합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는 아주 먼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¹¹

이와 맥락을 같이 하여 정영훈은 “홍익인간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중심개념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한국인의 과거의 꿈과 목표를 설명하는 말로 그치지 않고 한국인의 현재상황과 실재를 설명할 수 있는 용어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 그것이 남과 북 전역에 걸쳐 단순한 구호나 장식품의 수준이 아니라 현실을 설명하는 말로 자리잡을 때에야 진정한 통일은 완성될 것이다. 민족사회를 도덕적으로 정화하는 과제나 세계화시대에 열린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제도 홍익인간을 한국인들이 정체성의 일부로 채택하여 실천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다.¹² 또 다른 글에서 정영훈은 “홍익인간이념은 또 21세기 현대문명의 진로와 관련하여 한민족이 세계인에게 제시할 수 있는 이상이기도 한 것 같다. 오늘날 20세기 문명을 반성하고 21세기의 방향을 찾는 작업이 세계 지성계의 주요 담론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 현실을 비판하고 대안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인간이라는 가치이다. 그것이 진정으로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과 행복을 보장하는가 하는 것이다. 인간성 상실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그 회복에 대한 갈망은 21세기 지성계의 주요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신화시대부터 그 같은 기준을 제기했었다. 홍익인간이념이 바로 그것이다. 역사를 가진 민족·국가는 어느 나라나 건국신화·창세신화를 가지지만,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민족의 건국신화에도 홍익인간과 같

¹¹ - 위의 책, p. 261.

¹² - 정영훈 외, 『홍익인간이념연구』 (성남: 정신문화연구원, 1999).



은 숭고한 휴머니즘이 홍익인간과 같은 구체적 언어로 표현된 사례는 없는 것 같다”라고 지적하고 있다.¹³

이에 류승국 교수는 “한국사상과 평화의 이념”이라는 글을 통해 “경제나 정치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그 민족의 특수성 정체성을 인정하는 보편적 국제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단순한 이기주의, 국수주의, 패권주의만 가지고는 자국의 평화와 복리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깊이 자각해야 한다. 우리는 인류의 공동체 의식으로 세계사적 난제들을 공동으로 풀어 가는데, 정치 지도자나 경제인이나 지성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한국의 사상은 실리(陰)와 도덕(陽)을 이원화하지 않는 음양조화의 원리이다. 이 원리를 조정하는 것은 인간주의이다. 성실한 인간이 되는 인간화 운동이 경제적 풍요와 민주적 공동 참여에 앞서 더욱 중요한 요건이다. 이것이 다름 아닌 홍익인간으로 인류평화를 이룩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라고 결론짓고 있다.¹⁴ 이와 더불어 류승국 교수는 “21세기 문화의 방향은 물질 속에 매몰된 인간을 회복시켜 인간화하는 인간존중사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된다. 물질이 위에 있고 인간이 밑에 있는 현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인간은 하늘이나 물질과 대립된 관계에 있지 않고 서로 승화된 존재이어야 한다. 고래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인도주의 전통을 바로이 계승할 때 우리를 화합케 하고, 남북을 통일시키게 되고, 전세계 인류를 평화롭게 할 수 있다”¹⁵라고 하여 홍익인간 이념은 곧 평화사상이요,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의 인도주의 전통이며, 실천적 정치사상임을 강조한 것이다.

¹³-정영훈, 『홍익인간사상과 21세기 한국』 (홍익문화통일협회, 2001), p. 30.

¹⁴-류승국, “한국사상과 평화의 이념,” <<http://www.kookhak-ngo.org>> 참조.

¹⁵-류승국, “한국사상의 형성과 전개: 홍익인간사상의 뿌리,” 『홍익문화통일협회 강연집』 (홍익문화통일협회, 2001), p. 27.

이러한 한민족의 평화사상은 다양한 연구들에서 발견된다. 이와 관련하여 김광린 역시 “홍익인간사상은 우주내의 모든 존재를 포괄하는 평화사상으로, 인간만이 아니라 하늘, 땅, 사람 등 모든 존재 간에 유익을 상호 제공하는 것을 기본 정신으로 하고 있다. 이를 표현을 달리해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홍익인간사상은 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종교와 종교, 인간과 자연 간의 화해와 공존을 지향하는 사상이며, 이러한 점에서 홍익인간사상은 더불어 살려는 자세, 곧 공존의 정신이 중시되는 지구화 및 정보화시대에 부합하는 사상”임을 강조하고 있다.¹⁶ 또한 이풍용 역시 “홍익인간사상의 본질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의미 있게 구현될 수 있다. 특히 홍익인간사상은 인류의 정신문화에 사랑의 본래 의미와 의의를 돌이켜보게 한다고 할 수 있다. 위대한 성인들이 제시했던 절대적인 사랑은 이기심을 버리고 인간사회가 공존공영하도록 가르쳤다. 그러한 사랑의 원형을 찾아볼 수 있는 홍익인간의 ‘사랑’정신은 인간적 사랑보다 더(益) 큰(弘) 사랑정신으로 살라는 가르침이다”라고 하여 한민족 정신의 원형이 사랑과 평화임을 지적하고 있다.¹⁷

결국 한민족의 평화 구축 과정은 동북아는 물론 나아가 평화를 갈구하는 모든 세계인들에게 평화에 대한 보편적 가치와 바람직한 평화체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건국이념과 건국목표인 홍익인간 이화세계라는 상생(相生)과 대동(大同)의 철학이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의 기본이념과 철학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이를 위해 우리는 세계 최고의 적극적 평화국가, 평화주도국가, 평화지향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¹⁶-김광린, “지구화 및 정보화시대와 홍익인간사상,” 『홍익문화 통일강연시리즈 04-2호』, 통권 22호 (홍익통일문화통일협회, 2004), p. 32.

¹⁷-이풍용, “홍익인간의 개념과 현대적 의의,” 『홍익문화통일협회 강연집』 (홍익통일문화통일협회, 2003), p. 45.



국내외적 노력을 한층 기울여야 한다.

평화를 기원하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평화를 연구한다고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평화를 실현하는 것은 평화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몫이다. 평화의 주체는 우리 모두이고 나 자신이다.

평화는 인권과 함께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대안적 이념으로 떠오르는 실천적 개념이다. 우리는 평화의 중요성을 한반도의 현실 속에서 역사적으로 경험해 왔고 9·11 사태 이후 평화의 중요성을 새삼 절감하고 있다.

이상의 짧은 논의에서도 드러나듯이 한국의 고유사상, 전통사상에 담겨 있는 평화사상의 위대성을 우리 스스로 자각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한민족의 통일에의 열망을 전 세계에 알려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스스로의 의식을 성장시키고, 나아가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성의 논리로, 그리고 통일한국이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야 함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민족의 역사적 사명이기도 하다. 결국 앞으로 논의될 평화의 브랜드화는 우리 문화와 정신, 즉 우리 것의 세계화 작업이기도 한 것이다.

III 한반도 통일과 평화

인간들이 사용하는 어휘들 중 ‘평화’라는 말보다 의식 수준이 높은 말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전쟁, 테러, 폭력, 괴질(SARS), 파업, 자살 등 인간 사회에 만연하는 어두운 면을 표현하는 용어들, 이 언어들을 정확할 수 있는 용어가 ‘평화’일지 모른다. 우리 인간은 평화로운 세상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그럼에도 평화로운 세상은 유토피아처럼 때로는 아득히 먼 곳으로 여겨진다. 우리의 숨쉬기가 그러한 것처럼 이 세상에 평화만큼 쉬운 것도 없고 평화만큼 간절한 것도 없다.

세계화, 정보화는 젊은 세대들의 교류는 물론 국가 간의 교역을 확대하고 있다. 동북아의 한류 열풍도 이러한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한 예가 될 것이다. 이는 과거에 대한 집착보다는 새로운 문화의 공유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하다.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평화번영정책은 한반도에 평화를 증진시키고 남북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 조성과 동북아 경제중

심국가로의 발전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통일·외교·안보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결국 평화만이 진정한 한민족 번영의 토대가 됨을 새삼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민족은 분단 과정, 분단의 성격 그리고 지정학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분단 극복과 통일과정에 있어 주변국의 직간접적 참여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민족의 통일이라는 과업과 우리의 지정학적인 위치는 동북아국가들의 역사적 화해를 이끌 수 있는 중요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통일한국은 동북아 평화지대, 동북아 평화공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며,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향후 민족사의 발전에 활용하여야 한다.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마주치는 지역으로 양대 세력의 국제정치적 역학관계로부터 큰 영향을 받아왔다. 강대국 중심의 국제정치적 논리는 한민족의 소망과는 달리 분단과 전쟁을 회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역사적 교훈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민족 중심의 논리 못지않게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에 대한 이해와 신중한 대응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돌아보게 한다. 한반도는 동아시아 지역 모순의 결절점이었다. 안재홍은 조선의 자주독립이 동아시아 평화에 어떻게 관건으로 작용하는가를 큰 안목으로 통찰한 바 있다. 그는 “조선 한번 자주 독립을 잃어버리면 동아시아의 평화 문득 깨어지고 만다”고 설파했다. 그의 주장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즉 한반도의 평화는 여전히 동아시아의 평화이며, 세계평화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다.¹⁸

그러나 남북관계의 진전이 반드시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깨지기 쉬운 유리잔과 같다. 평화는 규범적

¹⁸-조민, “한반도 평화 구축과 통일의 전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2005. 9), p. 1.

가치이기도 하나, 평화의 유지와 창출은 전략적 판단과 실천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분단은 한반도를 장기간 냉전구도 속에 존재하게 만들었으며, 갈등과 대립의 일상화하는 부정적 특성들을 구조화시켜 왔다. 세계적인 냉전구조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냉전구조는 아직 해체되지 않고 있으며, 냉전의 대내외적 유제들이 아직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북핵위기와 남남갈등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냉전의 상징적 징표들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분단상태에 놓여 있는 한국의 경우 평화문화의 형성은 실천적 함의를 지니고 있는 현실적 문제이며, 평화번영정책의 근본적 철학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냉전체제가 종식되지 않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한반도에 고착되어 있는 냉전문화를 평화문화로 전환하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¹⁹

평화의 개념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평화체제 형성 가능성은 상호 밀접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의 강조를 통해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의 필요성 및 방안이 자연스럽게 모색되는 분위기로 나아갈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평화교육을 위한 동북아 연대(평화기금, 평화연구소, 평화교과서 및 역사교과서 공동개발, 평화운동의 국제적 네트워크화 등)를 구축하고 강화해 가야 한다. 또한 우리 정부는 ‘적극적 평화국가’로서의 국가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즉 평화활동을 주도하는 국제기구에의 기부금(혹은 지원금) 확대, 분쟁지역 등에 대한 평화유지군 참여 확대를 통해 적극적 평화국가로서 국제

¹⁹-조한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내 평화 NGO의 기능과 역할,”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2005. 6), p. 2.

적 기여를 높여나가야 한다. 스웨덴의 경우 국제적 평화국가로서의 영향력이라는 면에서 우리가 참조할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요컨대, 한반도에서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체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3중구조의 안정화를 통해 가능하다. 즉 남북관계의 안정화, 남북한과 주변국 관계의 안정화, 한반도 주변 동북아질서의 안정화가 그것이다. 그러나 지난 정전협정 이후 지난 50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은 냉전해체라는 큰 국제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정하다.

남북관계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남북한간 적대관계의 청산과 평화협정 체결,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 군사적 긴장완화와 군축이 필요하다. 남북한과 주변국 관계의 안정화는 북한의 국제적 지위 정상화, 한·미관계의 재정립, 한반도 평화의 국제적 보장을 통해 이룰 수 있다. 한편 한반도 평화체제의 외적 환경을 구성하는 한반도 주변 동북아질서의 안정화는 동북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한반도 평화를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과정에서 동북아의 화해 협력을 위해 평화적 노력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고, 이는 곧 세계평화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참여정부는 평화변영정책, 동북아중심국가 건설, 동북아경제중심을 국정목표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동북아 ‘평화’중심국가를 강조함으로써 분단 극복과 통일과정에 유리한 입장을 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평화를 강조하면 할수록, 그리고 국제적으로 평화국가의 이미지가 강해질수록 동북아 평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한민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한반도 비핵화, 통일한국의 영세중립화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반도의 중립화 선언은 통일과정에서 그리고 통일 이후 동북아 지역에서 여전히 영

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미·중을 안심시키고 이들을 통일지지 세력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또한 이는 군비확충 등 재무장을 서두르는 일본의 명분을 약화시키고, 동북아의 화해와 군축을 이끌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문제는 국가뿐만 아니라 비국가 관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보 이슈로부터 인도주의적 이슈까지, 국내에서 국제차원에 이르는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좁은 의미로는 남북한 관계와 넓은 의미로는 한반도문제를 다루는 데 다양한 행위주체와 이슈들이 중층적으로 그리고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은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다양한 주체와 영역 간의 조화로운 협력관계의 형성과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의 필요성으로 연계된다. 거버넌스의 개념은 이와 같은 한반도문제의 중층적 복합성을 해소하는 방법론적 의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핵 개발문제를 포함한 북한이슈는 남북한과 동북아의 주변국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자, 지구촌 전체의 공동 관심사로 다루어져 왔으며, 정부와 국제기구 등 전통적 행위주체는 물론 초국가기업, 국내외 NGO 등 새로운 행위주체가 관여하는 국경을 초월한 문제 영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이슈의 해결을 위해서는 각 행위주체와 영역들이 협력적 관계를 포함하는 접근방법인 거버넌스 차원의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거버넌스 개념은 국가와 NGO, 기업 그리고 국제기구와 국내기구 간의 효율적 협력체계의 구축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상태의 달성을 위한 거버넌스는 국내외 차원을 망라한 주체와 영역을 달리하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한반도 평화라는 공동의 주제에 대해 공통적 관리·자원통제·권력행사를 위한 방법의 집합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거버넌스 개념의 핵심적 공간으로서 시민사회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²⁰

이와 더불어 한국의 평화운동은 갈등에 의한 구분인 적극적 평화보다는 소극적 평화 개념과 친화력을 보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완전한 의미의 평화는 적극적 평화의 개념 속에서 찾아질 수 있다.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는 전쟁회피의 개념에 기초한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에서 나아가 사회정의가 구현되고 갈등의 민주적 조정 및 국가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사회정의, 정치적 질서, 국가간 협력 등이 충족되고 평화를 위협하는 폭력적인 상황이 사라져 인권 보장, 경제발전, 민주적 참여 등 평화의 적극적인 여건들이 갖추어지는 것이 적극적 평화상태이다. 평화문화는 바로 이와 같은 적극적 평화개념에 기초하여, 평화의 주체들이 폭력을 제거하고 갈등을 조정하며 평화를 조성하는 문명화 형식을 의미한다. 사회구성원들이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평화의 가치와 규범이 생활세계에서 습득될 수 있다면 평화문화가 뿌리내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²¹

그렇다면 왜 남북한은 통일을 해야 하는가? 통일은 우리에게 분단체제에서보다 많은 영역에서 이익과 부를 줄 것이다. 그러나 통일이 가져다줄 이러한 이익이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아니다.

먼저 같은 언어와 풍습을 지니고 5천 년 가까이 함께 살아왔고, 그래서 한 민족끼리 다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민족적 염원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의 역사공동체, 문화공동체를 이루며 살아 온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민족의 혼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 민족이 인류 앞에 떳떳하고 자랑스러

²⁰-위의 글, p. 3.

²¹-조한범 외, 『동북아평화문화비교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3), pp. 11~13.



운 민족으로 서기 위해서다. 그 동안 한국은 세계의 마지막 분단국가이고 분쟁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같은 민족끼리 죽음의 전쟁을 벌였던, 평화와는 거리가 먼 나라 중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세계의 화약고’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불렸다. 북한은 미국 국무부에 아직도 테러리즘을 장려하는 나라로 등록되어 있으며, 많은 나라가 북한은 아주 호전적인 사회라고 생각한다.

이제 이런 불명예를 씻고 우리 민족의 힘으로 통일을 이룸으로써 세계시민들에게 인류평화에 기여하는 당당하고 성숙한 한민족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나라의 경계를 넘어 온 인류가 평화와 행복을 염원하는 21세기에, 남북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함으로써 세계평화에 공헌하고, 더 인간적이고 창조적이며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통일을 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민족적 염원과 인류평화의 열망 위에서 있지 않은 통일은 껌데기에 불과하다.

IV 평화의 국가 브랜드화 방안

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 identity)란 기업의 관점에서 소비자에게 연상시키려고 하는 기획된 이미지의 집합을 말한다. 이것은 기업이 고객들로부터 자사 브랜드에 대해 기대하는 연상들, 즉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주려고 목적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 측면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소비자 측면의 브랜드 이미지가 최대한 일치하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이 브랜드 관리(brand management)인 것이다.²² 이것을 국가에 적용하여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평화라는 가치로 브랜드화할 수 있는 중장기적 전략을 모색함이 본 연구의 중심과제이다.

국가 이미지란 “개개인이 갖는 특정국가에 대한 인식·심상의 총체로서 단순히 국가를 식별하는 수단을 넘어 국가의 모든 분야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무형적인 자산”²³ 혹은 “특정 국가에 대해 형성된 인식의

²²-Alina Wheeler, *Designing Brand Identity: A Complete Guide to Creating, Building, and Maintaining Strong Brands* (New York: Wiley, 2006).

총체로서 해당국 국민들이 국내외에서 벌이는 제반활동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형성됨,”²⁴ 즉 어떤 국가에 대해 사람들이 갖는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형성된 종합적, 복합적 느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이미지는 정보와 환경, 노력 등의 요인에 의해 얼마든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 이미지 형성을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구체적인 노력의 일환으로서 브랜드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이미지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국가 이미지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국가 이미지가 국가의 경제적 발전, 정치적 분위기, 문화적 발전, 교육 정도, 부유함, 국가의 크기, 인구밀도, 인종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되며, 이들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다른 연구들은 국가 이미지가 국가 간의 접촉, 국제적 사건, 정보원 그리고 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에 의해서 형성되기도 하며, 국가와 그 국가의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국가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국가 이미지는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다양한 속성들에 대한 다양한 인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²⁵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연구한 선행작업에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 구성요소로 크게 세계화, 현대화, 사회복지환경, 사회안정성이라는 4가지로, 그리고 그에 속하는 각 속성들을 지적하고 있다.²⁶ 그리고 한국의

²³-국정홍보처, <<http://www.allim.go.kr>>.

²⁴-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주요국의 국가이미지 제고전략과 시사점” (2002).

²⁵-오미영박종만장지호, “한국의 국가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http://211.51.63.73/uw-data/dispatcher/lit/fulltext/Article>> (2006. 11. 3), p. 1 재인용.

²⁶-오미영박종만장지호의 공동연구 “한국의 국가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실제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세계화 요인(1): 품질우수, 긍정사고, 시장경쟁, 국가우호, 비즈니스, 문화개방, 고도기술, 음식발달, 현대화 요인(2): 높은 교육, 경제발전, 민주국가,



국가 이미지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국가 이미지 결정요인, 국가 이미지 현황 파악, 국가 이미지 제고 방안 등에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 매스미디어 분석을 통한 연구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²⁷ 한편 본 연구가 시도하는 평화를 비롯한 다른 가치 브랜드를 통한 한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 방안에 대한 선행연구를 발견하기란 사실상 어려웠다.

한국의 국가 이미지는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1년 12월 국민의 정부에서 'Dynamic Korea'가 국가브랜드로 선정되었고, 2002월드컵대회 개최 후인 7월에 비로소 '국가이미지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이어 10월에 Dynamic Korea-Hub of Asia 이미지 구축을 목표로 국가 이미지 종합대책을 확정하는 바 있다. 이는 참여정부에 와서 Dynamic Korea의 하위 이미지로 Heart of Asia, IT Korea, Harmonious Korea를 선정하였고, 국가 이미지위원회 체계를 민간전문가로 된 '이미지개발위원회' 신설 및 홍보대사를 위촉한 바 있다. 나아가 참여정부는 이미지 추진전략의 목표를 "① 이미지 제고 활동을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대내외 신뢰도를 높이고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중점 전략으로 추진, ② 제품/서비스의 가치 향상, 해외자본 유치, 해외 우리기업의 지원, ③ 우리 문화의 우수성 전파, 외국인 관광객 유치, ④ 국가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사회통합에 기여"로 제시한 바 있다.²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희망하는 최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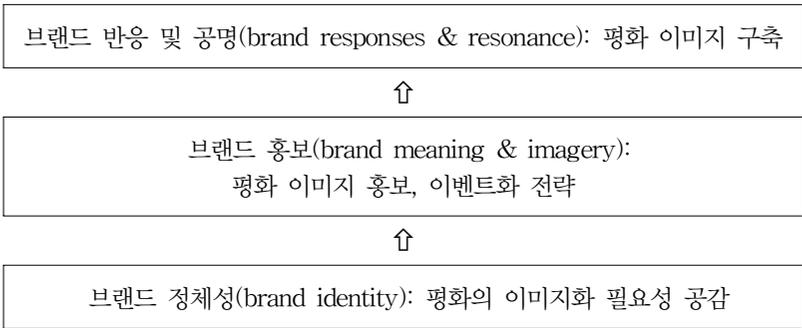
생활수준, 사회복지환경 요인(3): 의료용역, 위생관리, 교통편리, 사회안정성 요인(4): 정치불안, 경제불안, 신변위협을 한국의 국가 이미지 구성요소로 지적하고 있다.

²⁷-한국의 국가 이미지 연구동향에 관한 종합적 논의는 엄성원, "한국의 국가이미지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 <<http://211.51.63.73/uw-data/dispatcher/lit/fulltext/Article>> (2006. 11. 3) 참조.

²⁸-자세한 내용은 위 국정홍보처 자료 참조.

국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메인 컨셉(main concept)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Dynamic, Heart, IT, Harmonious는 단지 부차적인 개념들일 뿐이다. 한민족이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추구해야 할 개념은 ‘평화’(peace)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왜 평화가 한국의 브랜드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평화’를 국가 이미지로 브랜드화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가 브랜드 전략은 그 나라의 문화와 정신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치밀하게 접근되어야 한다.²⁹ 다음의 <그림 IV-1>은 브랜드 구축의 단계를 간략히 정리하고 있다.

<그림 IV-1> 브랜드 구축의 단계



자료: 홍종필, “강력한 브랜드 구축을 위한 단계적 접근,” 제일기획, 『Brand Forum』 (2006) 참조 필자 작성.

국가 이미지를 평화로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림 IV-1>

²⁹- 국가 브랜딩의 중요성에 관한 몇 가지 사례는 박재항, 『브랜드 마인드』 (서울: 사회평론, 2004), 제2장; 유진 D. 자페이스라엘 D. 네벤자할 공저, 신진철·윤경구 공역, 『국가 이미지와 기업경쟁력』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2005), 제6장 참조. 그리고 국가 브랜드와 국가 이미지와 관련된 연구로는 사이몬 안홀트 저, 김유경 역, 『국가 브랜드 국가 이미지: 글로벌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할 일』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참조.

과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화 이미지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의지, 체계적 시스템 구축 및 각계 전문가의 활용, 무엇보다 민간기업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국가 이미지 제고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표 IV-1>에서 보여주듯이, 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한 각국의 노력이 얼마나 활발한지, 유동적인지 그리고 성공적인지의 여부는 우리 스스로 느낄 수 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국가 이미지 전략은 ‘경제동물’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벗고 문화국가, 세계에 공헌하는 국가의 이미지를 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³⁰ 최근 미국이 밝힌 국가홍보 전략은 이라크 전쟁으로 추락하는 미국의 국가 이미지를 높이라는 부시 대통령의 특명에 의해 다음의 3가지 전략으로 긴급하게 추진되고 있다. 미 국무부 대외홍보차관인 카렌 휴즈가 밝힌 전략은 끊임없는 자유에의 다짐을 바탕으로 세계인들에 대한 희망과 기회의 긍정적인 비전 제시, 폭력·과격세력의 고립화와 종교를 빙자한 테러 합리화 노력 저지, 국가와 문화, 종교를 초월한 세계인들과 미국인들 간의 공동 이익 및 가치 모색 등 3가지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³¹ 이처럼 일본의 경우 지속적으로 꾸준히 국가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부시 정부의 미국처럼 당면한 국가 이미지로 하락을 막아내기 위한 기민한 홍보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표 IV-1>이 보여주듯이, 국가 이미지의 제고 노력이 각 국가별로 얼마나 정교하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효과는 물론 경제적인 성과와 미래의 국부로 연결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³⁰-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주요국의 국가이미지 제고전략과 시사점” (2002), p. 9.

³¹- 『연합뉴스』, 2005년 11월 11일.

<표 IV-1> 국가 브랜드 해외사례들

국 명	국가 브랜드	특 성
영국	Traditional Britain → We modern Britain → Cool Britannia → UKOK	대영제국, 전통 이미지 → 창의적 국가 이미지 * 문화미디어체육부 신설 및 창의산업 육성 로드맵 추진
프랑스		문화선진국 이미지(flair) → 과학기술 이미지 강조 * 문화국가이미지가 테레베고속철, 라팔전투기 수출 걸림돌
독일		인터넷 국가코드 DE 독일상품 로그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 조정위원회
호주	Sunshine Australia → Indigenous Australia → SMART Australia 상징물 : 캥거루, 태양, 바다	백인우월주의 국가 이미지 → 개방적 포용적 이미지
뉴질랜드	New Zealand Way → 100% Pure New Zealand 상징물 : 은고사기(Silver Fern)	깨끗한 녹색(Clean & Green)국가 이미지
싱가폴	Singapore Smile → New Asia Singapore → Uniquely Singapore 상징물 : 인어사자(Merlion)	
홍콩	Hong Kong, City of life → Asia a world city, Hong Kong 상징물 : 용(Dragon)	
대만	Taiwan, Touch your Heart	It's very well made in Taiwan → Innovalue → Green Silicon Island
말레이시아	Malaysia Truly Asia	
태국	Amazing Thailand	
한국	Dynamic Korea	Peaceful Korea, Land of Morning Calm(필자의 제안)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주요국의 국가이미지 제고전략과 시사점” (2002) 참조 필자 작성.

<표 IV-2> 평화 이미지 구축을 위한 전략

구 분	평화 이미지를 위한 노력들
<p>중단기 전략 (통일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ace Cup 축구대회 개최: 서울에서 출발하여 4년마다 분쟁 지역에서 개최. 수익금은 전액 유엔평화기금으로 기부 - 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 증대 - 메릴다 앤 게이츠재단 유치 - 유엔평화유지활동(PKO) 및 정부개발원조(ODA) 강화 - 동북아 평화현장(가칭) 채택 - 남북평화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남북정상회담 시) - 피스 옴부즈만제도 도입 - 평화봉사단, 평화교류단, 평화예술단 - 서울평화상, 평화의 섬 제주, 파주 평화음악제, 평화예술제, 평화미술제, 평화포럼, 평화음악제, 평화영화제, 평화연구소 및 평화학술세미나 강화 - 유엔평화공원(부산), 그랜드 피스 브리지(廣安大橋) - 평화분단금 기금 확대 - 민간 차원의 평화기금 조성 및 제3세계 지원 강화 - 평화체험투어(외국 리더 그룹, 미래지도자, 청소년그룹) - 6자회담을 ‘평화회담’으로 명칭 변경 - 국제교류기금 및 민간차원의 평화활동 강화 - 한국평화사상(홍익인간이념)의 국제적 이해 확산 노력
<p>장기전략 (통일 후 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본부 한국 유치 - 통일한국을 비핵 비무장 평화지대(peace-zone), 동북아 평화공원화(peace park) - ‘통일부’를 ‘평화부’(가칭)로 전환

국가 이미지 제고 전략이 단순한 구호나 이벤트에 머물러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 이미지에 맞는 구체적인 콘텐츠(contents)의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2002년 월드컵 이후 국가 이미지의 관리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변화가 가시화된다. 국무총리와 장관 10명으로 구성된 ‘국가이미지제고위원회’, 국무조정실이 관장하는 ‘국가이미지위원회’가 실질적인 정부기구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고위 관료들(실무위원회)과 일부 민간인들로 구성된 기구에서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대하기란 힘든 것으로 보여진다.

브랜드(brand)는 개인 또는 그룹의 판매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고 경쟁자와 차별화를 위한 로그, 상표, 표지디자인 등 특정의 이름이나 상징을 의미한다.³² 이는 국가 브랜드로 그리고 국가 이미지로 확대될 수 있다. 국가 이미지 제고 전략은 세계적 추세이다. 국가 이미지는 곧 국력이며 국부이다. 따라서 국가 이미지 구축을 위한 지혜로운 홍보전략과 과학적인 제고 전략이 요구된다. 그러나 국가 이미지 제고 전략의 선행요소는 메인 컨셉을 통한 핵심메시지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한국의 ‘Dynamic Korea’는 메시지 전달이 취약하며, 이는 본 연구에서 강조하는 ‘평화’로 대체됨이 통일과 미래 한국을 위한 중대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위의 <표 IV-2>는 아주 많은 내용을 축약하여 나타내고 있다. 평화 개념의 관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평화를 이벤트화하고 홍보할 수 있어야 한다. 월드컵 때 전 세계에 울려 퍼지던 ‘오 필승 코리아’의 구호가 ‘오 피스 코리아’(Oh! Peace Korea)로 울릴 때까지 평화를 한국의 국가 이미지로 브랜드화하여야 한다.

지식정보사회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세계화를 수반한다는 것이다. 세계화는 상품과 인간의 자유로운 이동과 무한경쟁의 논리가 작동되는 신자유주의적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개

³² -브랜드의 일반적 개념 및 전략에 관해서는 돈 E. 솔츠 저, 문달주 역, 『브랜드 배블』 (서울: 이치, 2005) 참조.

인은 물론 국가의 정체성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브랜드는 내국인 및 외국인들로 하여금 대상 국가에 대한 차별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신뢰감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같은 국가브랜드는 대상국가의 이미지로 나타나고, 국가의 이미지는 세계가 그 국가를 바라보고 대하는 방식을 결정하게 한다. 즉 국가 브랜딩을 통해 그 국가의 성취 목표에 주목하게 하고 나아가 지지하게 한다. 국가브랜드는 국가 이미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작업이며, 따라서 국부를 증대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 할 수 있다.

V

결론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정책 제언

전 세계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외국방송에서 내 조국 한국을 보았습니다. 내가 본 한국은 남북으로 갈려 싸우는 불안한 나라였고, 경찰과 시위대의 격렬한 화염병 시가전, 빨간 머리띠 두른 노사분규현장, 싸구려 제품 생산국에 일본의 속국, 먹살 잡고 싸우는 국회의원, 조직폭력배와 고위공직자의 총체적 비리가 판치는 부정부패의 나라였습니다. 내 조국 한국은 내가 그동안 보아왔던 자랑스러운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읽는 외국교과서에서 내 조국 한국을 보았습니다. 내가 읽은 한국의 바다 동해는 일본해였고,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속국, 한국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거의 전부가 중국의 천재성의 산물, 일본의 한반도 침략은 한국의 발전에 기여, 한국은 기나긴 역사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 일본의 지배를 경험,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관해서는 일본군이 중국군을 물리치고 한국을 합병, 한국경제는 곡물에 의존하는 나라였습니다. 내 조국 한국은 내가 그동안 읽어왔던 자랑스러운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8억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내 조국 한국을 보았습니다. 내가 본 한국은 “한국에서는 콜레라에 걸릴 위험성이 높으니 면역력이 없는 모든 여행자들은 A형 간염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며, 한국에는 사기가 판을 치고, 생활수준이 형편없으니 되도록 치과를 이용하지 말라, 전염병이 많은 나라니 여행 시 각별히 조심할 것, 한국은 아직도 일본의 식민지,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아프리카 수준”이었습니다. 내 조국 한국은 내가 그동안 보아왔던 자랑스러운 한국이 아니었습니다.³³

다소 긴 문장을 인용하였다. VANK라고 하는 사이버 시민단체가 벌이고 있는 소위 ‘겨자씨 프로젝트’의 일부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어떻게 각인되어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단체는 한국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범국민 KOREA 브랜드 홍보전략을 ‘겨자씨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실제 한국의 국가 이미지 홍보는 2002년 이전까지 취약하게 이루어져 왔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위의 인용문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한민족의 통일과 번영은 ‘평화’라는 수단을 통해서, 남북한은 물론 국제적 공감대 형성과 지지에 의해서 가능하다. 따라서 평화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지나쳐도 국익에 손해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러나 평화에 대한 강조는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에 의해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흥익인간 이념이라는 한민족의 고유한 평화사상이 동북아는 물론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왜 한민족의 통일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는 물론이거니와 나아가 인류의 평화라는 세계사적 의미를 갖는지를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또 다른 강조점은 평화를 한민족의 혹은 통일한국의 국가 이미지로 브랜드화하는 구체적인 정책화 방안을 논의한 점이다. 평화의 브랜드 전략은 통일의 장애요인들을 감소시키거나 혹은 장기적으로 이

³³- <<http://www.prkorea.com/koreaimage/koreaimage.htm>> 참조.



를 제거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평화라는 국가 이미지를 통해 한국의 국제적 신뢰성은 높아갈 것이며, 이는 통일과 번영을 가져오는 무형의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여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얻게 된 함의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화를 국가 이미지로 브랜드화하고 있는 나라가 다행히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평화를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로 반드시 선점해야 한다. 한민족은 홍익인간사상이라는 평화철학을 건국이념으로 삼고 있으며, 평화지향적인 문화와 역사를 가진 민족임을 알려나간다. 전쟁과 분단, 그리고 통일로 나아가 평화의 중심에 다가가고자 하는 한민족의 염원을 전 세계에 알려나가야 한다.

둘째, 한국은 평화를 간절히 원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나라로 이미지 메이킹(image making)하여야 한다. 한국의 통일은 동북아의 화해와 세계평화의 첩경임을 알려나가야 하며, 통일한국은 평화지대(peace-zone), 평화공원(peace park)의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설득하여야 한다. 결국 한반도의 평화는 모든 나라가 대동(大同)과 화해로 갈 수 있는 첩경이며, 상생(相生)의 길임을 주변국에 끊임 없이 알려나가야 한다.

셋째, 평화의 강조는 현재를 위한 최고의 안보전략이며, 통일전략이다. 나아가 한민족의 미래와 번영을 위한 최고의 투자전략이기도 하다. 결국 평화의 이미지를 선점하고 제고하는 평화강국 코리아는 무한한 국력과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을 담보하는 것이다.

〈정책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21세기는 이미지 전쟁의 시대다. 이미지를 만드는 브랜드는 곧 힘이요 자산이다.³⁴ 따라서 기업은 물론이거니와 국가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브랜드는 어느 나라에서나 가장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다. 세계적으로 이 일을 잘 해낸 나라는 별로 없다.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한국 역시 ‘다이내믹 코리아’를 국가브랜드로 내세워 한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국가 브랜드에 대한 평화적 가치의 접근이었고, 이를 통한 통일과 번영의 미래를 열 수 있는 학문적 모티브를 찾고자 함에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필자는 제언에 앞서 학문적 고민을 토로하고자 한다. 본 과제는 필자의 학문적 욕심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수시과제로는 여러 가지 점에서 한계에 봉착하였음을 먼저 고백하고자 한다. 이는 첫째, 한국 평화사상의 보편성에 대한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평화의 브랜드화 작업 역시 미개척 연구분야인지라 자료를 접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특히 국가 브랜드 혹은 국가 이미지에 관련된 국내외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선행연구들을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과제로 본 연구를 수행한 중간의 결과를 보고하자니 부득이 다음과 같은 제언으로 맺고자 한다.

첫째, ‘평화’를 국가 이미지로 브랜드화할 것을 제안하며,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재검토를 요청한다. 세계 최고의 평화국가, 평화를 지향하고 평화를 후원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한국이 선점해야 함은 한민족의 미래를 위한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마틴 롤의 성공적인 브랜드 구축을 위한 10단계 전략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³⁵ 비록 롤은 기업에 한정하여 아시아의

34- 데이비드 아커 저, 브랜드앤컴퍼니 역, 『브랜드 자산의 전략적 경영』 (서울: 비즈니스북스, 2006).

35- 마틴 롤 지음, 정인식·구승희 옮김, 『아시아의 글로벌 브랜드』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6) 참조. 이 밖에도 “새 기술을 브랜드에 담아라”, “전달시스템을 구축하라”, “대

글로벌 브랜드 구축의 전략 컨설팅을 제시하였지만, 이는 우리 정부의 경우에도 충분히 유용하다. 특히 “CEO가 브랜드 전략을 리드하라,” “자신만의 모델을 구축하라,” “고객 등 이해관계자 모두를 참여시켜라,” “기업 비전을 세워라,” “브랜드 홍보대사를 뽑아라” 등은 우리의 평화 브랜드 구축 전략에 타산지석이 될 중요한 점이다. 특히 국가와 정부 부처의 리더들이 브랜드의 전략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리드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브랜드 구축도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통일부,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문화부 등 정부 각 부처의 리더들이 우리의 현실과 미래를 위해 평화라는 브랜드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과제임을 일깨워주는 대목이다. 이런 점에서 CEO, 비전공유, 한국에 가장 적합한 가치 브랜드 구축의 중심은 통일부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정부내 부서의 성격상 통일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가치 확산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가장 앞설 수밖에 없는 특성 때문이다. 그리고 평화 브랜드 구축 역시 통일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둘째,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전문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2002년 10월부터 시작된 초보단계의 국가 이미지 전략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실무진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또한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가치를 한국을 대표하는 키 컨셉(key concept)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눈앞의 이익보다는 한국을 상징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선견지명의 비전이 그 가치에 담겨져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기업인 에르메스의 CEO 패트릭 토마(Thomas)

화하라”, “성과를 과학적으로 측정하라”, “목표를 조정하고 자신을 변화시켜라” 등을 제시하고 있다.

회장은 최근 한국을 방문하여 한 인터뷰에서 “에르메스는 고객의 니즈(필요)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아니라, 우리만의 독특한 정신이 담긴 세계로 소비자를 끌어당기는 회사이다. 또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세계로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회사의 역사와 비전을 공유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³⁶라고 의미 있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우리는 이 주장을 염두에 두고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위한 브랜드 구축의 정신과 전략에 대하여 논의를 할 수 있다. 먼저 적극적으로 한민족의 평화사상과 평화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우리의 정신과 문화에 담아 알려나가야 한다. 동시에 우리 스스로의 역사에서 평화로운 흥익인간사상의 위대성을 공감하도록 해야 하며, 나아가 평화의 브랜드화에 대한 비전을 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셋째, ‘Dynamic Korea’에 대한 이미지 정밀 조사와 ‘Peace Korea, Land of Morning Calm’의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고자 한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다이내믹 코리아’는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모습과 미래지향적 가치, 그리고 무한한 잠재력을 함축적으로 표현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가 국력이고 매력이 국부인 시대에 ‘다이내믹 코리아’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 고유의 정체성을 결여한 데다 철학적 기반과 미학적 운치마저 결핍된 ‘다이내믹 코리아’는 21세기용 국가 브랜드가 되기에 너무나 평범하고 진부하다.³⁷ 따라서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국가 브랜드 속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하나의 가치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세상을 지배하는 강력한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을 파워 브랜딩이라 하며, 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 브랜딩(emotional branding)이라 명명한다.³⁸ 한국을 특징지을 수 있는 가

³⁶-『조선일보』, 2006년 11월 13일, B6면.

³⁷-전상인, “코드 브랜드와 국가 브랜드,” 『중앙일보』, 2006년 2월 23일.

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국가브랜드에는 반드시 감성적 가치가 담겨 있어야 하며, 우리는 평화라는 가치를 통해 분단극복과 통일 한국의 평화적 기여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려나가야 한다. 평화에 대한 철학, 평화의 이미지는 한국(정부와 시민사회를 포괄)의 평화에 대한 콘텐츠(방향, 내용, 합의 등)가 얼마만큼 일관성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브랜드 성공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넷째, 한국의 현실과 문화에 맞는 평화를 이미지 메이킹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접근방법, 전략, 이벤트 및 홍보 방안 등의 모색이 후속연구로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앞에서 일부 언급하였듯이 이는 중장기적 접근, 지역차별화된 접근, 국가·지역 혹은 도시 연계적 접근³⁹ 등 세분화하여 다양한 논의가 구체화되어야 한다. 국가 이미지 제고, 국가 브랜드의 파워 브랜딩을 위해서는 특히 세계적 브랜드전문가의 역할이 절대적임을 여러 사례들이 잘 보여 준다.⁴⁰

마지막으로 민간단체, 시민단체, 기업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는 시대에 이를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민간분야의 적극적인 참여없이 국가 이미지 제고 전략은 어떤 경우든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을 다른 나라들의 사례에서 잘 볼 수 있다. 정부는 평화와 관련된 각종 국내외 행사를 유치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간담회, 거국적·초당적 합의 등 민주적 여론수렴의 과정을 거쳐 정부내 ‘평화지원센터’(가칭)의 설립과 운영을 제안하고자 한다. 통일부는 한국내 모든 평

³⁸-대릴 트레비스 저, 문병진 역, 『파워 브랜딩: 세상을 지배하는 강력한 브랜드를 구축하라』 (서울: 좋은 책 만들기, 2003).

³⁹-Simon Anholt, *Competitive Identity: The New Brand Management for Nations, Cities and Regions* (London: Palgrave Macmillan, 2007).

⁴⁰-이와 관련된 자세한 논의는 스콧 베드버리 저, 정지영 역, 『브랜드 발전소: 21세기 브랜드 강화 전략』 (서울: 이레, 2005) 참조.

화행사를 지원하고, 외교통상부는 국외의 평화행사와 홍보를 지원하며 양자간 유기적으로 긴밀한 역할 분담을 하여야 한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평화 이미지 제고 노력, 즉 평화에의 열정과 기여도를 높여 나가야 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함은 중대한 정부의 책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향후 한반도 평화의 지속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통일부가 평화 브랜드 전략의 주무 부서가 되어야 하며, 통일 이후 통일부의 명칭은 앞의 <표 IV-2>에서 언급하였듯이 ‘평화부’(가칭)로 전환되어 통일한국이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 평화의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평화는 여전히 이 시대 한반도는 물론 국제정치의 영역에서 최대의 화두가 되어 있다. 9·11테러와 이라크전쟁, 일본의 보수화와 헌법개정, 재무장 움직임, 중국위협론의 대두, 북한핵과 미사일문제, 이란 문제 등 세계는 더욱더 평화를 간절히 원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와 관련하여 ‘평화 거버넌스’는 21세기 시대상이 축약된 최적의 담론을 담고 있다. 거버넌스가 하나의 틀(frame)이라면, 평화는 그 틀을 채우고 있는 콘텐츠라 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어떤 형태의 거버넌스여야 하며, 어떤 유형의 평화여야 하는가의 질문이다. 아울러 그 평화의 거버넌스가 동북아의 다른 지역이 아니라 한반도를 매개로 나타나야 한다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 왜 한반도이며, 그것이 중요한가? 동북아 지역 국제정치사의 역사적 흐름에서 한반도는 역내 갈등구조의 직접적 피해자였다. 동북아 근대성이 내재하고 있는 갈등의 유산들이 가장 처연한 형태로 한반도에 남겨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21세기 동북아 평화와 협력질서의 구축은 한반도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필연성을 지닌다. 그 필연성은 갈등과 반목의 지역 국제정치의 역사적 유산 정리라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 조건에서 비롯



되는 필연성이다. 이제 한반도는 긴장과 대립의 현장이 아니라 평화와 지역 협력 창출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기능해야 한다. 그것이 한반도 평화 거버넌스의 담론이 제기되고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할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⁴¹

한반도가 속해 있는 동북아 지역은 여전히 가장 강한 세력들이 충돌하는 곳으로 남아있다. 동북아는 일본의 우익정권과 재무장 움직임, 중국의 민족주의(중화주의), 러시아의 부활과 미국의 영향력이 여전히 마주치고 있으며, 더욱 갈등이 첨예화될 개연성이 높다. 왜 평화여야만 하는가? 그런 까닭에 이곳에서 평화의 기운이 일어나면 세계로 퍼져나갈 효과는 지대하며, 이는 곧 인류의 희망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아시아의 평화는 한반도 통일의 기운으로 시작되어야 함을 알릴 수 있음은 곧 우리의 희망이기도 하다. 따라서 평화만이 살길이요, 우리의 미래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세력들에게, 그리고 북한에게 평화만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최고의 길임을 알려나가는 것이 최고의 첩경이며, 최선의 전략이다.

요컨대 우리는 평화를 광고, 이벤트, 홍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평화라는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치밀한 전략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평화를 홍보하고, 국제적으로 한국의 국가 이미지로 브랜드화함은 최고의 안보전략이자 통일전략이다. 나아가 한민족의 미래와 번영을 위한 최고의 투자이자 저축이기도 하다. 따라서 체계적으로 끊임없이 투자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평화라는 브랜드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의 산물이다. 나아가 브랜드는 곧 그 나라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상징한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의 한국과 미래의 통

⁴¹-김기정, “한반도 평화의 거버넌스,” 하영선 편, 『21세기 평화학』 (서울: 풀빛, 2002), pp. 459~460.

일한국은 평화라는 이미지와 가장 적합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평화의 이미지를 지혜롭게 활용하여 우리의 국가 브랜드로 제고할 수 있을 때, 한민족의 미래는 더욱 밝아 올 것이다. 결국 평화의 국가 브랜드 전략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는 최고의 통일전략일 수밖에 없으며,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당면할 장애들을 제거하는 최고의 협상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곽태환 외 지음.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 연구소, 1997.
- 김용운. 『한민족 르네상스』. 서울: 한문화, 2002.
- 대릴 트레비스 저. 문병진 역. 『파워 브랜딩: 세상을 지배하는 강력한 브랜드를 구축하라』. 서울: 좋은 책 만들기, 2003.
- 데이비드 아커 저. 브랜드앤컴퍼니 역. 『브랜드 자산의 전략적 경영』. 서울: 비즈니스북스, 2006.
- 돈 E. 슐츠 저. 문달주 역. 『브랜드 배블』. 서울: 이치, 2005.
- 로버트 쿠퍼 저. 홍수원 역. 『평화의 조건』. 서울: 세종연구원, 2004.
- 마틴 롤 지음. 정인식·구승희 옮김. 『아시아의 글로벌 브랜드』.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6.
- 박재항. 『브랜드 마인드』. 서울: 사회평론, 2004.
- 사이먼 안홀트 저. 김유경 역. 『국가 브랜드 국가 이미지: 글로벌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할 일』.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 스콧 베드버리 저. 정지영 역. 『브랜드 발전소: 21세기 브랜드 강화 전략』. 서울: 이레, 2005.
- 안청시 편. 『비살생정치학과 지구평화운동』. 서울: 집문당, 2004.
- 유진 D. 자페·이스라엘 D. 네벤자할 공저. 신건철·윤경구 공역. 『국가 이미지와 기업경쟁력』.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2005.
- 이승헌. 『숨쉬는 평화학』. 서울: 한문화, 2002.
- _____. 『한국인에게 고함』. 서울: 한문화, 2006.

- 일본평화학회 편집위원회 편. 이경희 역. 『평화학-이론과 과제』. 서울: 문우사, 1987.
- 정영훈 외. 『홍익인간이념연구』. 성남: 정신문화연구원, 1999.
- _____. 『홍익인간사상과 21세기 한국』. 홍익문화통일협회, 2001.
- 조한범 외. 『동북아평화문화비교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3.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엮음. 임정근·조효제 감수. 『세계분쟁과 평화운동』. 서울: 아르케, 2004.
- 통일부. 『참여정부의 평화변영정책』. 서울: 통일부, 2003. 3.
- 하영선 편. 『21세기 평화학』. 서울: 풀빛, 2002.
- Wheeler, Alina. *Designing Brand Identity: A Complete Guide to Creating, Building, and Maintaining Strong Brands*. New York: Wiley, 2006.
- Gobe, Marc, Gob, Marc, Sergio Zyman. *Emotional Branding: The New Paradigm for Connecting Brands to People*. London: Allworth Press, 2001.
- Anholt, Simon. *Competitive Identity: The New Brand Management for Nations, Cities and Regions*. London: Palgrave Macmillan, 2007.

2. 논문

- 김광린. “지구화 및 정보화시대와 홍익인간사상.” 『홍익문화 통일강연 시리즈 04-2호』. 통권 22호. 홍익문화통일협회, 2004.
- 김기정. “한반도 평화의 거버넌스.” 하영선 편. 『21세기 평화학』. 서울: 풀빛, 2002.
- 김연철. “새 정부의 평화 안보 정책: 적극적 평화, 호혜적 협력, 투명한 정책.” 『시민과 세계』. 제3호. 당대, 2003.



- 류승국. “한국사상의 형성과 전개: 홍익인간사상의 뿌리.” 『홍익문화통일협회 강연집』. 홍익문화통일협회, 2001.
- 윤태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치·군사적 과제와 정책대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한국국제정치학회·대한국제법학회 공동 토론회 자료집』. 2003.
- 이석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료집』. 2001.
- 이재봉. “한반도의 통일과 동아시아의 평화: 한반도의 중립화 및 동아시아 공동시장을 통하여.” 『통일문제연구』. 제13권. 1호. 2002.
- 이종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문제점과 전망.” 『21세기정치학회보』. 제10집. 1호. 2000.
- 이풍용. “홍익인간의 개념과 현대적 의의.” 『홍익문화통일협회 강연집』. 홍익문화통일협회, 2003.
- 이홍중. “동북아공동체의 구축현황과 전망: 정치, 경제 및 문화공동체를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제5집. 1호. 2002.
- 정연식. 『상고대조선의 정치이념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3.
- 정영훈. “홍익인간사상과 21세기 한국.” 『홍익문화통일협회 세미나자료집』. 홍익문화통일협회, 2001.
- 최철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와 정책대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한국국제정치학회·대한국제법학회 공동 토론회 자료집』. 2003.
- Galtung, Johan. “Social Cosmology and the Concept of Peace.” *Journal of Peace Research*. No. 2. 1981.

3. 기타 자료

- 『연합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http://www.prkorea.com/koreaimage/koreaimage.htm>>.

<<http://blog.news.go.kr/ligang/v/40022172>>.

<<http://www.allim.go.kr>>.

류승국. “한국사상과 평화의 이념.” <<http://www.kookhak-ngo.org>>.

염성원. “한국의 국가이미지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 <<http://211.51.63.73/uw-data/dispatcher/lit/fulltext/Article>>. 2006. 11. 3.

오미영·박종민·장지호. “한국의 국가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http://211.51.63.73/uw-data/dispatcher/lit/fulltext/Article>>. 2006. 11. 3.

조 민. “한반도 평화 구축과 통일의 전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2005. 9.

조한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내 평화 NGO의 기능과 역할.”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2005. 6.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주요국의 국가이미지 제고전략과 시사점.” 2002.



참조자료

국가 브랜드 마케팅 사례



Thailand

Slogan : Come to experience the splendours of a kingdom

Sub Slogan : Amazing Thailand

- 'Amazing Thailand'라는 캠페인을 불교문화와 접목시켜 지속적으로 운영





Slogan : City of Life

Sub Slogan : There is no place like Hong Kong

- 국제적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영문과 한문을 동시에 표기하고 붉은 색을 이용하여 중국문화권의 이미지를 표현



Slogan : New Asia

Sub Slogan : So easy to enjoy

- 세련되고 현대적인 문화의 이미지를 유려한 서체로 표현
 - 머라이언(Merlion)을 싱가포르연상을 도와주는 보조물 또는 캐릭터로 표시
 - 'New Asia'라는 슬로건을 통해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새로운 곳을 표현





Scotland

Search



TravelSmart

Welcome to the **Smart State**



100% PURE
newzealand.com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험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운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2006-01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전성훈	저	10,000원
2006-02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임강택	저	7,000원
2006-03	7·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과제	최수영	저	5,000원
2006-04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이석	저	8,000원
2006-05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의 연계: 4대 분야 협력체 형성 중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6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6-07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개혁의 부작용을 통해 본 북한 체제전환의 성공과제-	김영운	저	10,000원
2006-08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손기웅	저	6,000원
2006-09	북한의 당·군·민 관계와 체제 안정성 평가	정영태	저	7,500원
2006-10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연구	황병덕	저	8,500원
2006-11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서재진	저	10,000원
2006-12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조민	저	6,500원
2006-13	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최춘흠	저	5,000원
2006-14	한·미 안보관계의 변화와 북·미관계의 전망	박영호	저	7,000원
2006-15	동북아지역의 갈등·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6-16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임순희	저	8,000원
2006-17	개혁·개방과정에서 인권의제: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10,000원
2006-18	경제난 이후 북한 문학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조정아	저	6,000원
2006-19	남남갈등해소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학술회의총서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상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2004-08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과 한·중 협력			9,000원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2006-0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10,000원
2006-02	한반도 평화포럼: 구상과 이행			9,500원
2006-03	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10,000원
2006-04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m :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9,500원
2006-05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The Future of Northeast Asia			7,000원

협동연구총서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2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여인근 외	공저	7,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동성과 차별성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2004-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중국·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양영균 외	공저	10,000원
2004-1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박경하 외	공저	10,000원
2004-1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서중석 외	공저	10,000원
2004-15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외	공저	9,500원
2004-16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외	공저	6,500원
2004-17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윤종실 외	공저	5,000원
2004-1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4-1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방안	전재경 외	공저	8,000원
2004-2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이진국 외	공저	6,000원
2004-2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김이선 외	공저	8,500원
2004-2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윤철경 외	공저	10,000원
2004-2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4-24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1) : 잠재력과 장애요인	박기홍 외	공저	6,000원
2004-25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1)	김광억 외	공저	4,000원
2004-26	종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김광억	저	4,500원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II)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9,0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	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	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2006-11-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2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10,000원
2006-11-03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상)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4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중)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5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1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총괄편)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2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1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2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1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2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1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2 (2006)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i>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독일통일백서

독일통일백서 2005		8,500원
-------------	--	--------

연례정세보고서

200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4~2005		6,000원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200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6~2007		6,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 품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곤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 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Ⅰ) :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Ⅱ) : 부시 공화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전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4-21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전병곤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윤,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양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윤,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2006-01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2006-02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전현준, 김영윤
2006-03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6-04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2006-05	중·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6-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서재진, 김영윤
2006-07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	김국신, 배정호
2006-08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김영윤

2006-09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0	아베 정권의 출범과 대한민국도 정책 전망	배정호
2006-11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근, 최춘흠
2006-12	미국 중간선거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3	APEC 정상회의 결과분석	김규륜
2007-01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전현준, 정영태

KINU정책연구시리즈

비매 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2006-01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김영윤
2006-02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박영호
2006-03	북한 개발협력에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임을출
2006-04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김규륜
2006-05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전현준
2006-06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서보혁
2006-07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고재홍
2006-08	평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통일과정에서의 활용 방안	이현근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 품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1호(2006)

Studies Series

비매 품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 2006-01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Soo-Am
- 2006-02 North Korea'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Huh, Moon-Young
- 2006-03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Cho, Min
- 2006-04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Choi, soo-young
- 2006-05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eumsoon Lee
- 2006-06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Cho, Jeong-Ah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단, 비영리에 한함)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